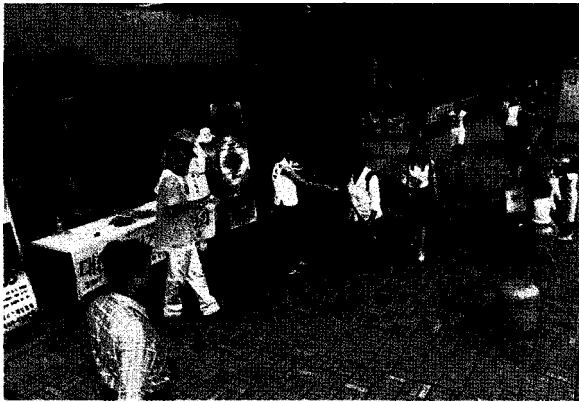


## 에이즈예방 거리 캠페인 실시



본격적인 휴가철과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맞이하여 에이즈관련 민간단체들과 보건소가 협동으로 7월 25일 인천 월미도를 시작으로 8월 31일 대구를 마지막으로 한 달간 대대적인 에이즈예방·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홍보용 리플렛 제공, 거리 상담, 패널전시, 이동차량을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전국 향락지를 중심으로 에이즈거리 캠페인을 개최하여 일반인들의 에이즈상식을 도모하고 콘돔사용을 적극 홍보하여 궁극적으로 에이즈감염자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 “남아공 에이즈 대책 부적절”

“남아공의 에이즈 위기는 거대한 물체와 충돌한 지구 최후의 순간을 묘사하는 ‘아마겟돈’과도 흡사하다.”

세계보건기구(WHO) 이종욱 사무총장은 8월 5일 헬싱키에서 열린 국제금연회의에서 오늘의 에이즈 재앙을 ‘세계인 건강의 총체적 위기’라고 규명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특히 최근 세계 최대 에이즈 감염자 보유국으로 떠오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부적절한 에이즈 정책을 비판했다.

이 총장은 “환자들이 죽어 나가는데 아프리카에서 예방이나 자발적 상담, 검사 따위만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하루 속히 적절한 예방 및 치료제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아공 보건당국은 에이즈치료제의 부작용을 우려, 국민에게 모태(母胎) 수직감염 예방약의 무료배급을 중단시킨 채 날마늘, 양파와 같은 민간 대증요법 차원의 예방책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 결과 남아공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약 450만명으로 세계 최다를 기록하고, 하루 평균 약 900명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 이 총장은 그러나 “에이즈는 (바이러스 질환이고 원인균이 이미 규명된 만큼) 약만 먹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거의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아공 정부가 체계적인 에이즈 치료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감염자들에게 특정식품 섭취 등만을 권유하는 것은 ‘세계인의 안전 문제’인 에이즈 대책으로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에이즈 치료 및 예방약 개발은 연구중심 제약업체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으므로 이들이 꾸준히 새 치료약과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일보 2003-08-08]

### 복지부, 핵산증폭검사장비 내년 도입

수혈 등으로 인한 에이즈·간염 바이러스 감염사례를 지금의 8%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첨단 검사방법이 내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수혈 받거나 혈액제제를 투약하는 연간 650만 명의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혈액 및 혈액제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혈액에 침투한 극소량의 바이러스도 검출할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NAT) 장비 등 도입 예산 38억여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핵산증폭검사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또 외국보다 지나치게 싼 혈액수가를 현실화, 핵산증폭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약 값 등 연간 200억원 대의 유지비용을 조달하고 혈액안전관리 시설·장비 현대화 및 연구개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핵심중독검사는 에이즈바이러스(HIV) 등에 감염된 지 7~10일밖에 안돼 항체가 형성되기 전이라도 바이러스 자체를 1만배 이상 증폭, 감염 여부를 알아낼 수 있어 항원 항체반응을 이용한 기존 효소면역측정법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90년대에 도입했다.

적십자사는 현재 효소면역측정법으로 B·C형 간염 및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의 잠복기(window period 평균 11~82일)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서울경제신문 2003-08-05]

## 스위스-英, 곧 에이즈 백신 임상실험

사상 최초의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백신 임상실험이 다음 주부터 스위스 로잔과 런던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로잔대학(CHUV)의 한 관계자가 7월 30일 발표했다.

제1단계 임상실험은 18~55세의 신체가 건강하고 에이즈 감염 위험이 적은 남녀자원자 24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균이나 희석된 형태의 에이즈바이러스가 아닌 재조합형 또는 합성 백신 형태로 실시, 어떤 감염위험에도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시술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백신 임상실험은 유럽의 에이즈 백신 연구계획을 의미하는 '유로백(EuroVacc)'의 일환으로 CHUV와 영국 런던의 임퍼리얼 컬리지(Imperial College) 소속 성(聖)세인트 병원에 의해 동시에 착수되며 앞으로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도 임상실험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번 임상실험의 결과는 올해 말에 발표된다.

유로백의 임상실험은 4단계로 실시되며, 인체가 감염 세포를 죽이도록 고안된 바이러스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DNA형 백신과 단백질 대신에 NYVAC로 불리는 합성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백신 등 두 종류가 사용된다.

이번 제1단계 실험에 이어 제2단계 실험은 그 대상자로 동성연애자, 마약중독자, 윤락녀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로백은 5년 전에 설립됐으며 현재 8개국에서 30여개 연구팀이 참여하고 있고 유럽연합(EU)과 독일과 프랑스

합작제약회사 아벤티스(Aventis)의 지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03-07-31]

## 世銀, 에이즈 경제타격 예상보다 심각 전망

에이즈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등 빈곤 지역의 국내총생산(GDP) 중대를 크게 가로막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적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세계은행 보고서가 경고했다.

'에이즈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적 비용(LECA)' 제하의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에이즈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GDP를 연간 0.3~1%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돼 왔으나, 이는 교육과 출산 등 생식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등 장기적으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공동 작성자인 세계은행의 산타 데바라잔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수십년간 적용해 온 데이터들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전염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남아공처럼 전염률이 높은 국가들의 1인당 GDP가 3세대(90년)동안 연간 50%감소하는 등 에이즈가 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간개발네트워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바라잔은 과거 보고서들은 에이즈로 부모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잃는 어린이들이 고아가 되거나 교육 기회 상실 등에 대한 영향은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에이즈 바이러스가 ▲젊은 성인을 희생시켜 노동 생산성과 숙련기술, 교육 등 유형의 자원 상실을 초래하고 ▲어린이들이 부모를 모두 또는 한쪽을 잃어 평생 의지할 수 있는 삶의 방편(기술)을 전수받지 못하며 ▲빈곤 심화로 어린이 취약률을 저하시키는 등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3-07-24]

## HIV 체내 은신처 확인

HIV(에이즈 바이러스)가 항바이러스 약물 효과를 피해가는 체내 은신처가 미국 연구진에 의해 확인돼 효과적인 에이즈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고 BBC인터넷판이 보도했다.



BBC방송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의대 연구팀은 최근 HIV가 면역활동을 하는 활성 상태의 T세포만을 공격한다는 통념과 달리 간접적인 방법으로 약물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활성 상태의 T세포에도 감염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대부분의 HIV바이러스가 최신 치료제로 퇴치될 수 있지만 일부가 살아남아 감염자 신체에 은신처를 확보, 항바이러스 요법이 중단되면 다시 출현하는 원인을 규명한 것으로 향후 에이즈의 치료제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방송은 평가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HIV는 '대식세포'라고 불리는 별개의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으며 감염된 대식세포는 화학 물질을 분비해 제3의 세포인 'B세포'를 변형시키게 된다.

연구팀은 변형된 B세포가 비활성 또는 휴면 상태의 T세포와 접촉할 경우 T세포가 HIV 감염에 취약해진다고 설명했다. HIV 전문가인 토머스 제퍼슨 대학의 로저 포머란츠 교수는 이번 발견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규명함으로써 과학자들이 HIV퇴치방법을 찾아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2003-07-14]

## 15~24세, 낙태와 HIV 절반 차지

전세계 인구 중 약 10억명은 15~24세 연령대에 분포하며 그 중 약 2억명은 중국에 거주한다. 여성의 출산보건 증진을 추구하는 비영리재단 마리 스토퍼스 인터내셔널(MSI)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낙태 건수와 HIV 보건자의 절반은 이 연령대의 젊은 세대가 차지한다.

또 전세계에서 매일 약 6천명의 젊은이들이 HIV에 감염되고 매 10분마다 10명의 소녀가 위험한 낙태수술을 받는 등 이들은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감성적 혼란과 각종 성병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연합뉴스 2003-07-11]

## "크로아티아 등 발칸3국 에이즈 창궐 위기"

크로아티아와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발칸 3국은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에이즈 확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경고했다.

세계은행 발칸지역 사무소는 "이들 3개국이 마약과 무분별한 섹스, 급격한 사회적 변동 및 보건 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 공통적인 사회적 조건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3개국에 대해서도 각각 에이즈 창궐을 막을 수 있는 전략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2003-07-09]

## 한국 '삶의 질' 낮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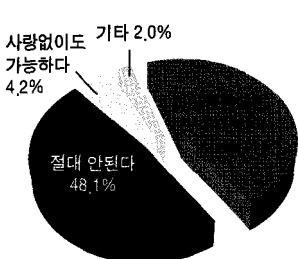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올해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세 단계 떨어진 30위를 기록해 전반적인 삶의 질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UNDP가 매년 발표하는 HDI는 평균수명과 교육 정도, 1인당 국민소득 등을 주요 지표로 삼아 국가별 삶의 질을 점수로 계량화한 것이다. 올해 보고서는 "21개 국가가 1990년에 비해 HDI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경제 개발이 오히려 인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개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1980~90년 사이 HDI가 하락한 국가는 4개국에 불과했다.

노르웨이는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부터 10위는 각각 아이슬란드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가 뒤를 이었다. 최하위인 175위는 지난해에 이어 시에라리온이 차지했으며 174위부터 170위까지는 각각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말리 부룬디 모잠비크 순으로 조사됐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진은 에이즈 확산에 따른 평균수명 감소 탓이 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동아일보 2003-07-08]

## 청소년 6명중 1명꼴 성경험



- 혼전성관계 -

청소년의 17.3%가 실제 성경험이 있고, 첫 성관계를 가진 시기는 중학교 때가 가장 많았다.

신규태 서울 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

의회 상임이사가 7월 7일 서울지법에서 개최된 청소년 상담 세미나에서 초·중·고교생 및 비행청소년 23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절반 가량은 "사랑한다면 성 관계를 가져도 된다(45.7%)"고 생각하고 있으며, 4.2%는 "사랑 없이도 성 관계가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절대 안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8.1%였다.

조사대상의 17.3%는 실제 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비율은 비행 청소년의 경우 더욱 높게 나타난다. 남자 비행청소년의 57.4%, 여자 비행청소년의 82.1%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첫 성관계는 이성친구(69.5%) 각종 미팅(19.2%) 유흥업소(4.9%) 원조교제(4.9%) 등이며 성 관계 허용가능 시기로는 만남 지 석달 후라는 대답이 39.6%로 가장 많았고, 절대 안됨(30.6%), 만남 당일도 가능(15.9%) 한달 후(9.3%) 순이다. 첫 성관계를 가진 시기로 중학교 때라는 응답이 5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32.7%), 초등학교(10.3%) 순이어서 생리적으로 성적 호기심이 높아지는 사춘기 중학생이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통해 성이 구체화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조사대상 청소년의 99.6%는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반면 성교육이 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절반이 넘는 54.4%가 전혀 도움이 안됐다고 대답해 실제 성교육 효과가 미비함을 드러냈다. [일간스포츠 2003-07-07]

### “中·印 의료체계 미비 에이즈 급증 가능성”

세계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에 에이즈 환자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높다고 줄리 거버딩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장이 경고했다. 거버딩 소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전염병퇴치 관련 회의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중국과 인도의 지금 상황이 에이즈가 크게 번진 10년 전 아프리카 상황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CNN은 유엔의 통계를 인용, 현재 전세계 에이즈 양성 반응자 추정치는 4천2백만명이며 이 중 3천만명이 아프

리카인, 4백만명이 인도인, 1백만명이 중국인이라고 보도했다.

유엔은 2010년까지 에이즈 환자가 현재보다 4천5백만명 증가한 8천7백만명으로 늘고, 7천만명이 에이즈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했다.

거버딩 소장과 함께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잭 추 마 국무부 보건과학 담당 부보좌관은 지난 20년간 2천5백만명이 에이즈로 사망했으며, 2010년 쯤 중국에서 1천만명, 인도에서 2천5백만명이 에이즈에 감염될 것으로 추정했다.

거버딩 소장은 “중국·인도 등에서는 공공 의료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에이즈가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같은 상황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에이즈 감염자가 폭증하는 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 2003-07-04]

### 중국 마약중독자 74%가 청소년

중국의 마약 중독자수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백만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74%가 청소년이라고 중국 공안부가 밝혔다. 또 마약 중독에 따른 사망자는 지난해 2만 5천명을 넘어섰고 마약을 통한 에이즈 감염자도 4만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에서는 마약 중독자가 만 7천명으로 지난 10년동안 80배 이상 증가했다고 공안부는 밝혔다. [YTN 2003-06-27]

### 에이즈바이러스 치료백신 개발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저항력을 가진 특이항체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려 에이즈 치료백신 개발에 새 돌파구가 열릴 전망이다.

미국 스크립스연구소의 이언 윌슨 박사는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2G12로 불리는 특이항체가 HIV의 '위장술'을 간파함으로써 HIV를 분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2G12 항체는 10년 전 오스트리아 과학자가 한 HIV 감염자로부터 처음 발견했다.



월슨 박사에 따르면 HIV가 침입하면 이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 많은 항체가 만들어지지만 HIV는 인간의 당(糖)으로 스스로를 위장해 항체의 공격을 피한다.

그러나 HIV 감염자 중에서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 특이항체는 HIV가 사람의 당으로 위장하더라도 그 배열이 인간의 당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는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월슨 박사는 "이 항체는 항원을 인식하는 두 가지 항원 결합분절(Fab)이 서로 교합, 바이러스 세포 표면의 당처럼 다발을 이룬 형태를 쉽게 식별한다"며 "이 항체 생산을 자극할 수 있는 항원을 디자인해낸다면 에이즈 치료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항체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항원이라고 불리는 침입자 세포 표면의 구조를 보고 이를 침입자로 식별, 면역세포에 도움을 청하거나 직접 공격하는 우리 몸의 중요한 방위체제다. [서울경제신문 2003-06-27]

###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6-8월)

<b>- 본부후원금 -</b>			
정인자 200,000	곽현정 60,000	함유식 20,000	
김준화 20,000	윤성현 10,000	박선희 5,000	
오원익 100,000	김성아 50,000	이성심 10,000	
김순덕 10,000	백유현 10,000	강철원 150,000	
권순주 100,000	김인창 20,000	박석갑 100,000	
김애심 30,000	김태경 10,000	송준희 10,000	
이윤훈 30,000	대한적십자서	몰지사보건강사회	150,000
<b>합계 1,095,000원</b>			

<b>- 부산 -</b>			
김동중 10,000	김명선 10,000	김미정 10,000	
김병호 10,000	김종관 10,000	김진홍 10,000	
김형갑 10,000	김호준 10,000	박경희 150,000	
박용자 10,000	박원주 400,000	박은희 10,000	
박훈영 10,000	배홍준 10,000	송미순 10,000	
신동연 10,000	이동근 10,000	이수연 10,000	
이은재 10,000	이은주 10,000	이정순 10,000	
장희경 100,000	조영주 50,000	하정순 10,000	
허세경 10,000	홍윤기 10,000		
<b>합계 920,000원</b>			

<b>- 울산경남 -</b>			
고정순 10,000	김정귀 10,000	류진희 10,000	
박상용 300,000	박진자 10,000	박진희 10,000	
박희순 10,000	서명숙 10,000	서미순 10,000	
심환철 50,000	송명옥 10,000	신순아 10,000	
이경숙 10,000	이미순 10,000	이영숙 50,000	
이춘자 10,000	이희경 10,000	전영시 10,000	
정순자 300,000	조용자 10,000	천수업 10,000	
최의자 10,000	황인선 30,000		
러 정보시스템 100,000		참원시 외사회	1,700,000
신종제약(주) 100,000			
<b>합계 2,810,000원</b>			

## 도와드립니다 감염인 동료상담원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감염인 재활 사업의 일환으로 감염인 동료상담원을 에이즈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감염인들은 신분노출 문제 등으로 비감염인보다는 같은 감염인에게 보다 신뢰를 느끼며, 보건소 방역업무가 과중하여 에이즈 감염인 상담 및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감염인들이 부담없이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감염인 동료상담원이 도와드립니다.

이 사업은 감염인 동료상담 1회당 40,000원의 상담료가 지급되는 감염인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에이즈의 피해자인 감염인들이 에이즈 문제의 해결자로 앞장서 주도적으로 에이즈사업에 참여하고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의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고자 시행합니다.

#### \* 상담원이 하는 일

- 동료 감염인 상담
- 신규감염 발생시 역학조사 상담에 동행
- 보건소 에이즈 담당자가 진행하는 매 3개월의 정기상담

#### \* 상담원 파견절차

- 각 보건소나 병원에서 협회로 요청하면 해당 지역의 상담원을 파견해 드립니다.

주요상담원 업무 워크숍을 실시함  
 보건소 담당자, 감염인 상담원  
 문의: 02-260-4111  
 팩스: 02-260-2114  
 홈페이지: www.aids.or.kr